

제 1 교시

국어 영역

[0] 목차

- [01] 길 (김소월): 02p
- [02] 하나씩의 별 (이용악): 03p
- [03]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04p
- [04] 초토의 시 1 (구상): 05p
- [05] 오월 소식 (정지용): 06p
- [06] 와사동 (김광균): 07p
- [07] 연륜 (김기림): 08p
- [08] 정릉 살면서 (박재삼): 09p
- [09] 꽃 (이육사): 10p
- [10] 누룩 (이성부): 11p
- [11] 나비와 광장 (김규동): 12p
- [12] 민들레꽃 (이형기): 13p
- [13] 그 밤을 생각하며 (김수영): 14p
- [14] 달밤 (황동규): 15p
- [15] 눈 오는 날에 (조지훈): 16p
- [16] 유등제 (이수익): 17p
- [17] 포스터 속의 비둘기 (신동집): 18p
- [18] 대설주의보 (최승호): 19p
- [19] 그 여름의 끝 (이성복): 20p
- [20] 그 나무 (김명인): 21p
- [21] 원시 (오세영): 22p
- [22] 차심 (손택수): 23p
- [23] 먼먼함에 대하여 (고재중): 24p
- [24] 머느리밤풀꽃 (송수권): 25p
- [25]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한용운): 26p
- [26] 산에 대하여 (신경림): 27p
- [27] 참회록 (윤동주): 28p
- [28] 녹을 닦으며 - 공초 14 (허형만): 29p
- [29] 멀치 (김기택): 30p
- [30] 버텨목에 대하여 (북효근): 31p
- [31] 잘 익은 사과 (김혜순): 31p
- [32]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문태준): 32p
- [33]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33p
- [34] 사과밭을 지나며 (나희덕): 35p
- [35]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36p
- [36] 흐름에 대하여 (문정희): 37p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09p]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 바이: 전혀.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32p]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햇빛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햇빛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자무스[佳木斯]: 중국의 중화강 상류에 있는, 러시아와의 국경 가까이 있는 도시.
 * 빨가: 폴카(polka).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舞曲).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81p]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짹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81p]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쫓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나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

[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84p]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림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오월 벵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우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트를 찾아갈까나.

일본말과 아리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죄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썩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머얼리 우는 오르간 소리……

- 정지용, 「오월 소식」 -

* 종선: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84p]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쩔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 멍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계 들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 와사등: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

[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87p]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췌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87p]

술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잠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 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강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 나게 넘치는 자산(資産)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 박재삼, 「정릉 살면서」 -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90p]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쏘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북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 쏘도라: 툰드라(tundra).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타이가 지대의 북쪽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90p]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개쳐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93p]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燐光)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93p]

쪼그만 것이
 노랗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셋노랗게 피어 있다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 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터를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댕새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쪼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꺾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96p]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96p]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느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운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황동규, 「달밤」 -

* 고의춤: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099p]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 입고

창에 기대면

박 넉출 상기 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나려 쌓인다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

소슬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무념(無念)히 썩어 가면은

이 허망한 시공(時空) 위에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꽃다발처럼 꽃다발처럼

하이얀 눈발이

나려 쌓인다

마음 이리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 천년(千年)의 풀피리 소리

비에(悲哀)로 하여 내 혼이 야위기에는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고나.

- 조지훈, 「눈 오는 날에」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099p]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 불빛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으랴.
 세상의 온갖 설움을 풀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서
 한 줍씩 불빛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마침내 달을 그곳이 불귀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으리.

길가엔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멀어져 가는 점점의 등불을 바라보며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묶여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니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소서.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나는
 보고 싶다.

- 이수익, 「유등제」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103p]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걸눈질을 하고 있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 동안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 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3p]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매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106p]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106p]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빗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앞줄 아릅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뜬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9p]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돌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다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 오세영, 「원시」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록 109p]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
 가마 속에서 흥과 유약이 다들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뜨거운 찻물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고……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찻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 손택수, 「차심」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12p]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리나겠니

- 고재중, 「먼먼함에 대하여」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12p]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산부추, 개망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범꼬리, 썩냉이, 돈나물꽃
 이런 꽃들로만 짝 채워진
 소군산열도 안마도 지나
 물길 백 리 저 송이섬에 갈까

 그중에서도 우리 설움
 뺏물까지 녹아흘러
 밟으면 으스스지는 꽃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
 울엄니 날 잉태할 적 입덧 나고
 씨엄니 눈돌려 흰 쌀밥 한 숟갈 들통나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
 몰래몰래 울음 훔쳐먹고 그 울음도 지쳐
 추스림 끝에 피는 꽃
 머느리밥풀꽃*

 햇빛 기진하면은 혀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었느니라.
 - 송수권, 「머느리밥풀꽃」 -
 * 머느리밥풀꽃: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머느리가 배가 고파 밥풀을 몰래 훔쳐 먹었다가 죽은 후 피어났
 다는 설화가 있는 꽃.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73p]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옵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일경초(一莖草)*가 장륙금신(丈六金身)*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萬有)는 같은 소조(小鳥)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

* 일경초: 한해살이풀.

* 장륙금신: 일 장 육 척인 불상의 신장(身長)을 이룸.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73p]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다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떼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 모깃대 개죽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찰넝쿨처럼 머루 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거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88p]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88p]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 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운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총총히 뜬채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빛방울
 그리 살아온
 마흔세 해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뜨도록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 허형만, 「녹을 닦으며 - 공초* 14」 -

* 공초: 조선 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93p]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 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뺏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93p]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98p]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뺑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 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손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98p]

혼(魂)이 오늘은 유빙(流水)처럼 떠나네
 살차게 뒤척이는 기다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이곳에서의 일생(一生)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
 꿈속 마당에 큰 꽃나무가 붉더니 꽃나무는 사라지고 꿈은
 벗어 놓은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되었다
 초생(草生)을 보여주더니 마른 풀과 살얼음의 주저앉은 둥근
 자리를 보여 주었다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가 앞서 가더니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가
 뒤따라왔다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가 가슴속에 있더니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등지를 내 머리 위에 이겨 되었다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고
 구 구체적인 나의 세계의, 슬프고 외롭고 또 애처로운 맨몸에
 상복(喪服)을 입혀주었다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이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않은 이
 누가 있을까, 눈시울이 별정계 익도록 울고만 있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누가 있을까,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은 이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와 강과 헤어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돌담을 들렀으나 유랑과 흐름을 지닌 집으로 돌아왔다
 돌담을 들렀으나 유랑과 흐름을 지닌 무덤으로 돌아왔다
 -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19p]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쟁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319p]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러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퍼지지 않는다
 아직 짊어질 게 남았다는 듯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 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빈 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간다
 무슨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진다
 아, 네가,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사과나무 그들이 환해질 수 있을까
 꽤맨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보다
 오늘은 내 백결(百結)*의 옷이 한결 가볍겠구나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

사과 한 알을 내려놓는 데
 오 년이 걸렸다

-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

* 백결: 무수히 꿰매 누더기가 된 옷.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326p]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326p]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 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되지 못하고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산으로 가는가
한 번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 빼앗기고
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가는가.

-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